

대학생집단의 도시 공원녹지에 대한 의식에 관한 연구 -대구시 달성공원을 중심으로-

김수봉 · 김정배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1998년 8월 28일 접수)

Study on the Values for Urban Green Space in terms of University Students -The Case of Talsong Park in Taegu-

Soo-Bong Kim and Jeung-Bea Kim

Faculty of Environmental Studies, Keimyung University, Taegu 704-701, Korea

(Manuscript received 28 August 1998)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uggest basic guidelines for the urban park development policy in Taegu. This research is mainly based on university students' essay on <private inquiry of urban park in Taegu>. Talsong Park, the most popular site for the students' essay, was selected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 focused on the general images of the park, negative images of the park and aspirations and demands for the park in relation with Talsong Park redevelopment policy. The research of this result suggested that the renovation of Talsong Park from zoo-oriented park to the historic & cultural park status. The other main suggestion was consideration of public participation from the planning stage for the betterment of park management.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education for the local people was stressed in order to enhance public awareness of environment for the solution of our common environmental problems in relation with Local Agenda 21.

Key words : urban park, redevelopment policy, environmental education, Local Agenda 21

1. 서 론

최근에 이르러, 우리 나라의 인구증가,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의 여파로 파생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제까지의 수질, 대기 그리고 쓰레기 문제의 차원에서 인간의 쾌적한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도시 내 적정 규모의 공원녹지의 확보와 접근 가능성에 대한 관심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 일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지역 부근의 보전녹지에 대하여 아파트나 골프장건설 등과 같은 파괴행위를 자행할 때 예전과는 달리 그 지역주민들은 시위나 농성 등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시의 자연에 대한 그들의 애정과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열망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이러한 녹지문제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은 하나의 변화이며, 이것은 1987년 이래로 우리 나라에 정착되고 있는 민주화의 열기와 95년 지방자치제의 출범 그리고 소득의 증대, 교육수준의 향상, 자동차 소유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증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회·경제적인 가치기준의 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믿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필시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

적인 현상들은 주민들의 공원녹지와 다른 도시환경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도시환경과 공원녹지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측정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라도 사람들은 도시의 공원녹지에 대하여 그들의 다양한 도시 내의 녹지와 자연의 경험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아마도 도시 주민의 다양한 사회계층, 교육수준, 수입정도 그리고 주거지역 등에 따라 같은 도시의 공원녹지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Foresta, 1980).

우리 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자나무, 공동우물, 제단주변, 동네의 광장, 정치 좋은 계곡 등지에서 서민의 위락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오늘날의 공원의 역할(강신용, 1993, 1994)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876년 개국 후 한국에서는 일본(1873년 1월 15일 태정관 포고 제 16호)과 같은 공원의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독립공원(1896년)이나 파고다공원(1897)등이 만들어졌으나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송태갑 외 1인, 1992).

한국에 도시공원이 제도화된 것은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 연도인 1962년에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제정되어 공식적으로 공원의 개념이 형성되었고, 1967년에는 도시계획법으로부터 공원법이 분리·제정되어 공원정책의 전환기를 맞았다. 공원법제정 이전에는 <서울특별시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1962.1.27)>에 의거하여 당시의 공원행정은 건설국 토목과 계획계에서 담당했으며, 그 다음해(1963.3.7)에 건설국 토목과에 공원계가 신설되어 공원행정은 그때부터 독립되어 발전되었고, 후에 (1965.9.2)공원시설계로 명칭을 변경했다(강신용, 1998). 그러나 1962년 이래로 지금까지 도시 내에 있어서 공원과 녹지의 공급은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비생산적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과정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도시공원법의 내용은 유럽에서 만들어진 도시공원의 제도를 모범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서양의 공원을 의미하였지 우리의 전통적인 공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편, 우리 나라 모든 도시에서는 그 도시의 지리적, 지형적, 역사적, 문화적 여러 특성은 물론 공원의 주 이용자인 도시 주민의 욕구를 무시한 채 공원의 개발이 35년 이상 지속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도시공원의 공급과 관련된 법률은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척 복잡하고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상의 공원의 유형은 우리 나라 각 도시의 특성을 무시한 채 거의 같은 형태, 같은 면적 그리고 같은 모습으로 공급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시공원법>을 제정할 때 모범으로 했던 일본의 도시공원유형이나 기준도 자기나라의 현실에 맞게 수정된지가 오래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비판 없이 남의 것을 베낀 우리의 <공원법>상의 공원 유형이나 기준은 지금도 아무런 비판 없이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공원관계부처의 관심사는 이러한 모순된 현실과 유리된 공원제도의 점진적인 개선보다는 시민 일인당 공원 면적의 증가에만 관심을 기울인 결과 이용자인 도시민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산악지역까지를 공원면적에 포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공원관계부처에서 매년 발표하는 일인당 공원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가 집에서 쉽게 갈 수 있고 우리가 길을 걷다가 쉴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공원은 거의 우리의 도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공원이란 꼭 수목으로 우거지지 않아도 좋고, 희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언제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열려있는 그 존재의 양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피하고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도시내의 공원녹지의 보전과 창출이 필수적이라는 도시녹지 환경정책의 사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확실적인 유형과 면적 그리고 공원시설 중심의 도시공원관련법은 현재 증대되고 있는 주민의 공원녹지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또한 도시공원의 공급을 위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김수봉, 1994) 되었으나, 그러한 비합리성을 극복하고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나 철학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

서 현재의 구태의연한 공원녹지관련제도나 법은 변화하는 현 시대상과 주민들이 살고있는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도시 주민의 공원녹지에 대한 변화하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새로운 제도의 모색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영국의 경우 최근 Park Life:Urban Parks and Social Renewal 공원의 생존:도시공원과 사회부활(Comedia and Demos, 1995)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빅토리아시대 이후 영국의 유산이었던 도시공원이 왜 최근에 와서 시민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적·재정적인 측면에서부터 다양한 이용자와 연령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의 분석을 통하여 공원의 개선을 통한 사회부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계획측면에서 볼 때 공원을 단지 하나의 도시계획의 시설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공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도시민을 위한 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과 연계하여 지방의제 21이 단지 환경만을 단순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환경과 경제와 사회적 여러 관심사를 연계하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공동의 선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제 21의 주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면 지방주민과 NGO(비정부단체)등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한다고 하였다. 특히 현재의 공원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즉 도시공원의 현재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방향 연구(서울시, 1995)에서 서울시의 현 실정에 적합한 도시 공원녹지의 개발 방향을 미시적 공원녹지의 집행, 도시소공원의 개발, 역사문화공원의 조성, 하천공간의 복원, 공원기능 개선 등 17가지의 정책사업을 제시하여 다른 시의 모범을 보여 주었으나 지방의제 21과 관련하여 공원녹지의 역할과 도시민의 참여방안이나 NGO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 않으나 생각된다. 그러나 대구시의 경우 영국이나 서울시의 경우처럼 도시 <공원녹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방향이나 그 기초연구가 1991년의 대구직할시 조경사업의 질적 개선방향(대구직할시, 1991) 그리고 김수봉(1994, 1996)의 연구에는 이후 매우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달성공원탐방방기를 중심으로 그들의 눈에 비친 현재 공원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다가오는 21세기에 있어서 대구시 도시공원의 개발방향 및 새로운 공원개발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조사방법

본 연구는 1996년도 2학기 계명대학교 환경과학대학에서 개설한 교양선택 과목인 환경과 인간 수강생 198명(인문대 88명, 가정대 37명, 경상대 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저자가 계명대학교 학생을 조사집단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간과 경비의 제한 때문이

Table 1. The grouping of general associations in relation to Talsong Park

Analytical items	Associations (No. of mention)
Recreational Activities(53)	휴식(25), 산책(12), 문화행사(8), 장기나 바둑(5), 교양강좌(3), 보물찾기(2), 소풍(2), 화투놀이(1)
Names of flora & fauna (419)	동물: 진돗개, 코끼리, 원숭이 등(357), 나무: 조경수, 거수목, 수림(44), 꽃: 구절초, 작약, 백리향, 난초 등(14), 풀(4)
Park facilities (175)	잔디밭(32), 관공루(25), 이상화시비(23), 최재우 동상(20), 비석(18), 동물원(12), 종합문화관(10), 벤치(10), 어린이현장비(8), 시계탑(5), 휴게실(3), 테니스장(3), 연못(2) 식수대(2), 시민현장(2)
Positive images (40)	깨끗하다(9), 조용하다(9), 활력(8), 풍요롭다(5), 상쾌하다(3), 유익하다(2), 푸르다(1), 자연스럽다(1), 자연의 일부(1), 보호(1)

었다. 두 번째로 이들 계명대학교의 학생들은 경북대학교와 더불어 대구시내에 존재하는 2개 종합대학 중의 하나로서 대학생 집단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세 번째로 탐방기를 쓰기 위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공원은 대구시 도시공원으로서의 대표성이 있다고 사료되었다. 그리고 공원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대신에 대학생들의 탐방기는 설문조사에서는 제한될 수 있는 공원 이용자들의 경직된 의견보다는 좀더 다양하고 신선하며 현장감 넘치는 도시 공원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담고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학기중인 96년 9월 24일을 전후하여 학생들에게 대구시에 산재하는 공원을 방문한 후에 그 탐방기를 OO공원 탐방기란 제목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수강생들의 공원탐방기 과제를 제출한 목적은 우리 향토의 역사의 탐구를 통한 자연과 향토사랑을 느끼기 위해서였다. 또 다른 하나의 주요한 목적은 이러한 공원탐방을 통하여 새내기들인 수강생들에게 환경교육 측면에서 도시의 자연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경험에 의해 작성된 탐방기를 통하여 오늘날 도시공원의 문제점을 재조명해보고자 함이었다.

학생들이 제출한 총 190편의 탐방기 중에서 대구지역의 공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지리산탐방기나 구미 금오산 도립공원을 찾아서 등 8편을 제외한 대구시내에서 산재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182편의 탐방기가 연구를 위한 분석용으로 채택되었다.

2.2 분석방법

분석은 학생들이 제출한 탐방기 182편 중 탐방기를 위하여 타 공원에 비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달성공원이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대구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를 위한 사례 대상으로 하였다 (달성공원; 74편, 두류공원; 54편, 경상감영공원; 23편, 망우공원; 13편, 팔공산 자연공원; 13편, 앞산공원; 4편, 신천 수변공원 1편). 분석내용은 장래 도시공원의 존재이유와 존재양식을 장래세대의 시각에서 규명한다는 의미에서 탐방기 내용 중에서 공원의 일반적인 모습, 공원의 부정적인 모습 그리고 제안사항과 관련된 <단어와 문장>을 중심으로 단순빈도분석을 하였다.

3. 사례연구: 달성공원

달성공원은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29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29,700㎡(39, 234평)이며 일반시설 3,256㎡, 동물시설 6,027㎡, 잔디시설 26,446㎡, 토성 66,116㎡ 그리고 기타 27,855㎡ 등으로 이루어진 유료공원이다. 공원을 둘러싼 토성은 삼한시대의 지방 중심 세력을 이룬 부족들의 생활 근거지였으며, 6세기에는 달구벌(대구의 옛 이름)이 신라에 합병된 뒤 군사 요지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1596년에 석축을 더하여 경상감영을 설치하였으며, 1963년 10월 18일에 사적지 제 62호로 지정되어 관공루, 문화관, 동물원 등을 주요 시설이 있으며 1969년에 도시공원으로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분석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원의 일반적인 이미지와 관련된 단어, 부정적 공원 이미지와 관련된 단어 그리고 공원의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3.1 일반적인 공원의 모습

표 1은 달성공원의 일반적인 모습을 주요 놀이행태, 동·식물의 명칭, 공원시설 그리고 탐방시 좋았던 점으로 분석·요약한 것이다.

3.1.1 주요 놀이행태에 관하여

대학생들의 눈에 비친 달성공원의 면모를 우선 주요 놀이행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달성공원은 시민들을 위한 가벼운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와 같이 탐방기에서 언급된 달성공원에서의 주요 놀이행태로서 '휴식'이 25번, '산책'이 12번 언급되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달성공원의 공간구조나 주요 공원시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달성공원의 경우에 동물원과 이용객들이 들어 갈 수 없는 잔디밭 그리고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토성이 전체공원 면적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적 위락시설은 공원전체의 0.01%를 차지하는 테니스 코트(1,322㎡)가 전부이다. 기타 대학생들의 관찰에 의해 발견된 달성공원의 주요 놀이행태로서는 문화행사, 장기나 바둑, 교양강좌, 보물찾기놀이, 소풍, 화투놀이 등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를 위한 보물찾기나 소풍 등의 언급 횟수가 겨우 2회인 것으로 미루어 달성공원은 도시민을 위한 정적인 위락공간으로서의 역할을

Table 2. The grouping of negative associations in relation to Talsong Park

Analytical item	Associations (No. of mention)
Negative images(64)	악취(15), 훼손되고 불결한 공원 시설(14), 쓰레기통의 부족(8), 불쌍한 동물(6), 노인문제(5), 주차장의 부족(5), 공원 내 상점의 가격이 비싸다(5), 공원주변의 즐비한 포장마차(시끄럽다, 삭막하다)(4), 좁다(2)

Table 3. The grouping of needs associations in relation to Talsong Park

Analytical item	Associations (No. of mention)
Suggestions(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원을 아끼고 사랑하자(10) · 시민의 휴식과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좀 더 많은 공원을 만들어 주었으면(6) · 노인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놀이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증설(5) · 투자를 배가하여 동물원을 현대식으로 바꾸고 깨끗하게 관리 했으면(5) · 깨끗하고 값싼 편의시설의 확충(2) · 높은 콘크리트 담을 헐어 내고 대신 주위를 공원과 조화되게 자연스러운 소재로 대신 했으면(2) · 동물원 없애고 동물들을 고향으로 보내주었으면(2) · 장애인 전용 도로를 만들었으면(1) · 쓰레기통(색상과 모양)을 통일했으면(1) · 공원에 진입하기가 무척 불편하므로 진입로를 넓혀 주었으면(1) · 연못의 수질을 개선했으면(1)

수행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3.1.2 동·식물에 관하여

한편, 달성공원의 탐방기에서 언급된 동물의 명칭을 살펴보면 공원 안에 설치된 동물원 때문인지 코끼리를 비롯한 각종 동물의 명칭이 무려 357회에 이르렀다. 이것은 모두다 동물원을 위해 사육되는 동물의 이름이었고 공원 내에 서식하는 야생조류 등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탐방자의 눈에 공원의 디자인패턴과 인공적인 공원시설물에 의해 공원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매우 인위적인 모습으로 비치고 있음에 의해서가 아닐까 추측된다. 식물의 경우 인위적인 자연 즉, 조경수 혹은 거수목, 수림 등의 이름으로 44회, 구절초, 작약, 난초 등 화단 조성용 꽃의 이름으로 14회 언급되었으나, 자연 그 자체를 나타내는 풀이라는 이름으로는 겨우 4회가 언급되었다. 요즈음 학계와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도시내의 소생물 서식공간(비오톱 biotop)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탐방기를 통해 알 수 없었다. 이것은 달성공원의 현재의 존재양식 즉, 매우 인위적인 디자인패턴과 인공적인 공원시설물의 배치와 매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3 공원시설에 관하여

대학생들에 의해 관찰된 달성공원의 시설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공원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용객을 시각적으로 사로잡는 잘 가꾸어진 잔디밭으로 전체의 18%(32/17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관풍루, 상화시비, 최계우 동상, 비석 등의 순이었으나 테니스 코트는 그 빈도가 매우 낮았다. 한편 이러한 시설들을 미루어 볼 때 달성공원의 시설들은 주로 이용자들로 하여

금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기 보다는 그냥 공원에 들어 와서 조용히 보면서 즐기는 시설들로 공원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용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공원시설로 자주 언급된 잔디밭을 그냥 시각적인 미적인 기쁨을 주는 곳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현대의 공원 이미지에 맞게 좀 더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하게끔 잔디밭을 이용객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것은 공원의 관리비를 낮추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능적 잔디가 운동공원이 아닌 일반공원이거나 정원에 적용되었을 때 관리에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 비료, 살충제에 의한 오염,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의 거부를 초래한다"(고주석, 1998)는 주장은 공원의 관리자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3.1.4 좋은 느낌에 관하여

대학생들이 탐방시에 느꼈던 달성공원의 느낌은 깨끗하고(9/40) 조용한 것(9/40)이 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활력 있다(8/40), 풍요롭다, 상쾌하다, 유익하다, 푸르다, 자연스럽다 등의 순으로 달성공원의 방문시의 느낌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달성공원의 경우 도시 내에서 도시민들이 그들의 바쁜 일상에서는 접해 볼 수 없는 조용함과 활력 그리고 깨끗한 등을 푸름을 통하여 제공해주는 정적인 위락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주요 놀이행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연 인간에게 이토록 유익한 달성공원이 도시내의 자연생태계의 중요한 일부로서 도시내의 동식물들을 위한 조그마한 서식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푸르다', '자연스럽다', '자연의 일부' 등의 단어는 그 출현 빈도가 적었다.

3.2 부정적 공원의 모습

표 2는 달성공원의 부정적인 모습을 분석·요약한 것이다. 먼저 달성공원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물원이 설치된 관계로 공원이용객들에게 악취로 인해 공원의 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었다. 표 2에서와 같이 공원의 부정적인 면을 분석한 결과 공원 탐방 시에 나뉠 점으로 '악취'의 빈도(15/64, 23%)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훼손되고 불결한 공원 시설'(14/64), '쓰레기통의 부족'(8/64), '불쌍한 동물'(6/64), '노인문제'(5/64), '주차장의 부족'(5/64), 그리고 '공원 내 상점의 가격이 비싸다'(5/64, 8%) 등의 순이었다. 다시 말하여 이러한 어휘들의 출현빈도가 많다는 것은 달성공원의 시설의 관리상태가 탐방객인 대학생들에게 딱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를 못 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달성공원의 경우 동물원으로서의 이미지가 크에도 불구하고 간혀있는 동물들에게는 아주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달성공원에 매일 모여드는 갈 곳 없는 '노인문제', '매우 부족한 주차장'과 '공원 내 매점의 비싼 가격' 등도 공원의 밝지 못한 모습으로 비추어 졌다.

한편, 그 다음으로 출현빈도가 많았던 달성공원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공원주변의 즐비한 '포장마차와 불결한 상점들'로 인하여 시끄럽고 삭막한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공원의 면적이 좁다'는 것 등이었다.

3.3 공원의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

한편, 탐방기를 제출한 학생들은 그들의 탐방기를 통하여 달성공원이 보다 나은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몇 가지 바램이나 요구사항을 제안했는데 표 3은 그것을 정리한 것이다.

공원의 개선을 위해서 대학생들에 의해 가장 많이 제안된 내용은 단연 '시민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공원을 아끼고 사랑하자'(10/36, 28%)는 것이었다. 이것은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대중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이른바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관하여 '깨어있는' 대중의 참여와 지지가 필수적임을 잘 시사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제안된 내용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시민의 휴식과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해 좀 더 많은 공원을 만들어 주었으면'(6/36), '노인들을 위한 문화 시설이나 놀이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증설'(5/36), '투자를 배가하여 동물원을 현대식으로 바꾸고 깨끗하게 관리했으면'(5/36), '깨끗하고 값싼 편의시설의 확충'(2/36), '높은 콘크리트 담을 헐어 내고 대신 주위를 공원과 조화되게 자연스러운 소재로 대신 했으면'(2/36), '동물원을 없애고 동물들을 고향으로 보내주었으면'(2/36)의 순이었다. 대학생들은 공원의 개선을 위해 '공원의 증설'이나 '노인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동물원의 개선' 혹은 '좁은 공원에 동물원을 철거하고 간혀있는 불쌍한 동물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 줄 것' 등을 제안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자 전용도로의 제안'에서 '쓰레기통의 모양과 색상', '진입로의 확장' 그리고 '연못의 수질 개선'에 이르기까지 달성공원의 개선을 위한 폭 넓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공원탐방기를 중심으로 그들의 눈에 비친 공원의 현재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장래 대구시의 도시공원 개발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탐방기 속의 <단어와 문장>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인 공원의 모습을 통하여 살펴본 달성공원의 경우, 처음 설계될 때의 전형적인 공원디자인 패턴과 인공적인 공원시설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의해서 제공되고 있었으며, 공원내의 동물원으로 인해 많은 외래동물의 이름은 언급되었으나 공원 내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의 이름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그리고 탐방기에 가장 자주 언급된 공원시설은 잘 가꾸어진 잔디밭으로 시민들에게 공원 자체가 깨끗하고 조용한 도시 내의 오아시스로서 그 소임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달성공원의 모습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자연 친화적 도시공원의 모습 이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동물이 사육되는 곳을 조경수나 화단용 꽃 등으로 치장한 곳 즉, 동물원으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달성공원의 일반적인 모습과 장소가 가지는 의미와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달성공원내의 동물원을 다른 곳(예를 들면 새로 조성 될 대구 대공원 부지)으로 옮기고 원래 이곳의 역사성(달성이라는 터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과 이용행태 특성(정적인 위락활동)을 살리는 의미에서 경상감영공원(구 중앙공원)과 같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는 문화환경으로서 역사문화공원으로의 전환 즉 재개발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 실질적인 재개발방안으로는 경상감영공원 재개발에서의 좋은 예에서와 같이 지방의제 21(맑고 푸른 대구 21)의 정신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기업에서 출자한 자금을 바탕으로 중앙공원(현재의 경상감영공원)의 재 개발시에 소홀히 했던 주민의 의견을 함께 모아 재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달성공원은 공원 내의 동물원의 악취와 잘 관리되지 못한 시설 등으로 인하여 공원의 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원의 악취로 인한 공원의 부정적인 요소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물원을 이전하거나 아예 우리도 외국의 경우처럼 동물 보호 차원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우리 안의 불쌍한 동물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거나 그들의 삶의 양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동물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만들어 주어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와 대중을 위한 환경 교육적 측면이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동물원의 조성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사료된다.

한편, 잘 관리되지 못하여 훼손되는 공원시설의 경우 주민참여의 기회를 계획단계나 조성 및 관리단계에서 확대해나가는 것이 지방의제 21의 의의와도 일치한다고 하겠다. 즉, 주민참여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확대해나가는 것은 공원자체에 초기에서부터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을 녹화사업에 워크숍방식으로 참여시

켜 그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달성공원의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내용이 시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원을 아끼고 사랑하자였다. 이것은 위의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공원을 아끼고 사랑하여 모두가 공원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지자는 의견이 다른 것에 비해 많은 것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환경의식을 높여 주는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민주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의사가 전체적 결정을 좌우한다고 볼 때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개개인이 지니는 환경의식의 높고 낮음이라고 생각된다. 인간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위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으로서의 환경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 문제를 지역주민 모두가 자기 일처럼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면 달성공원 혹은 우리의 도시공원이 당면하고 있는 노인 이용자 문제와 관리의 무관심으로 인한 공원의 부정적인 모습 등도 지역주민에 의해 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역주민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교육이 대중 속으로 깊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선 우리주위의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비로소 21세기에는 도시공원이 모든 시민을 위한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 이러한 지속적인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공원의 존재이유는 곧 도시공원의 존재양식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우리 대구에서도 시민들 사이에 자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이고 꾸준한 환경교육을 통하여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함께 공존해야한다는 생태적인 마인드에 대한 대중적인 활발한 논의와 생태공원에 대한 콘센서스가 이루어 질 때야 비로소 도시를 하나의 생태 시스템으로 취급하여 도시의 공원녹지가 도시내의 인위적 환경과 자연적환경 간의 균형을 이루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도시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공원녹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구시의 현실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공원 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공원 조사의 주요 도구로 사용되어 왔던 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 조사를 통한 통계적인 분석방법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량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장래 공원녹지의 개발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달성공원의 사례에 국한된 것으로서 결코 다른 도시 공원에 연구 결과를 적용시키고자하는 일반화의 논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姜信龍, 1993, 韓國·近代의開國期における公園の開設過程とその特質, 日本造園雜誌, 57-1, pp.16-33.
- 姜信龍, 1994, 韓國における近代都市公園受容と展開, 日本京都大學 博士學位論文.
- 姜信龍, 1998, 도시공원계획에 있어서 전통과 현대의 접목, 98년도 한국정원학회 학술논문발표대회 초록집, p. 18.
- 김수봉, 1992, 대도시 공원녹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I), 한국조경학회지, pp. 1-11.
- 김수봉, 1996,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효과적 도시환경계획의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pp.79-94.
- 고주석, 1998, 作庭記 -21C 한국적 도시공원의 추구-, 환경과 조경 120호, 98년 4월호, p.33.
- 대구직할시, 1991, 대구직할시 조경사업의 질적 개선방안, 대구직할시.
- 宋泰鉀·白井彦衛, 1992, 都市公園概念と制度の變遷に關する日・韓の比較研究, 日本造園雜誌, 55-5, pp.13-18.
- 서울특별시, 1995,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방향 연구, 서울특별시.
- Comedia and Demos, 1995, Park Life: Urban Parks and Social Renewal, ESRC Report.
- Foresta, R. A., 1980, Elite Values, Popular Values, and Open Space Policy,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 46(4), pp. 449-456.
- Kim, S., 1994, A New Perspective on Urban Green Space Planning Policy, The Case of Taegu City, Korea, Unpublished Ph.D Thesis, The University of Sheffield.